

편집 및 발행인 : 김중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 Contents

### ● 국제물류 통계

- 지난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운송시장 성장률,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CEVA Logistics, 필리핀 신규 물류센터 운영 개시

###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DB Schenker, 종합물류기업으로 전환 가속화

### ● 유럽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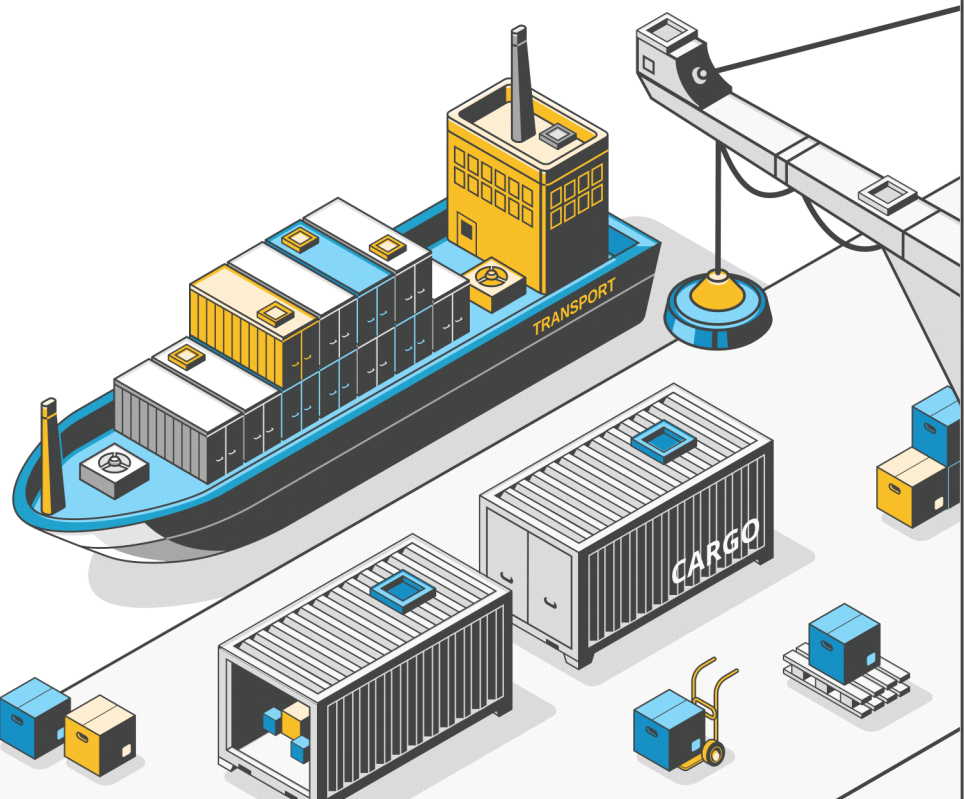
- 스위스 연방 평의회, 지하 화물 운송에 관한 법안 승인

### ● 글로벌 물류시장 심층분석

- 유럽 주도로 시작된 녹색 해운회랑 계획

### ● 공지사항

-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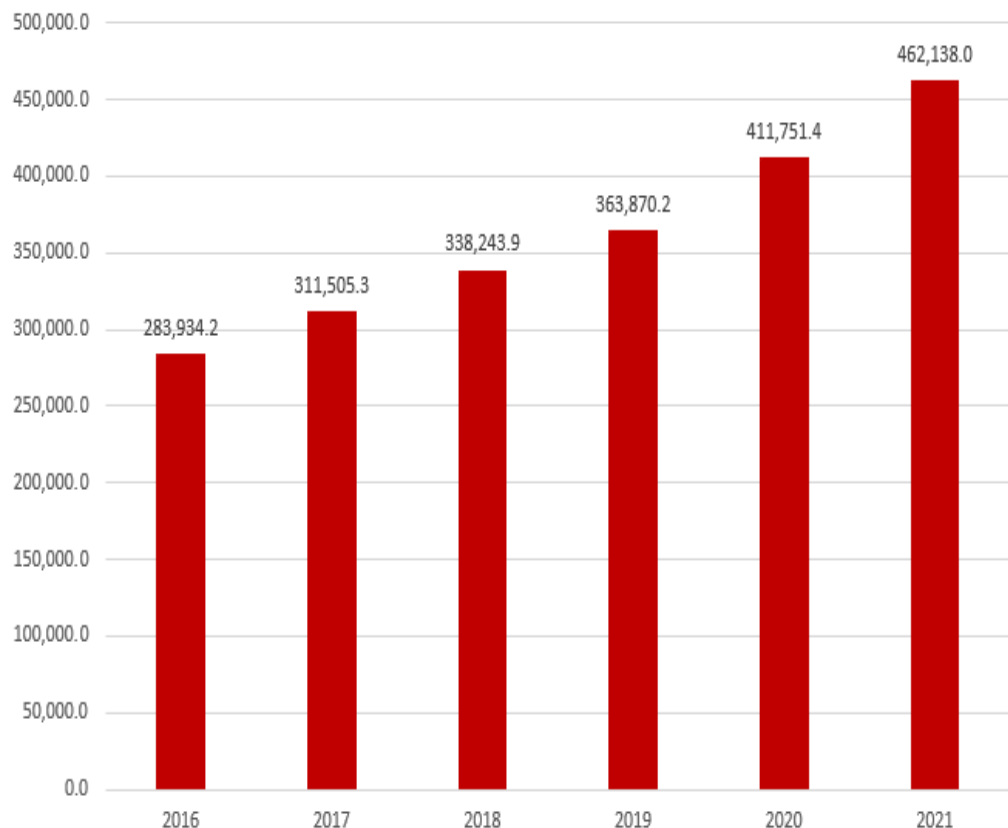
## 지난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운송시장 성장률,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지난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운송시장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조치가 다소 완화되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영향으로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운송시장 규모는 4,117억 5,140만 유로로 2019년 대비 13%(3,638억 7,020만 유로) 성장함
- 반면, 지난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운송시장 규모는 4,621억 3,800만 유로로 2020년 대비 12.2% 성장해 성장률이 다소 주춤함
- 이는 온라인 쇼핑 증가율의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IMF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증가율이 2019년 10.3%에서 2020년 14.9%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에는 12.2%로 다소 완화됨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운송시장 규모(2016-2021년)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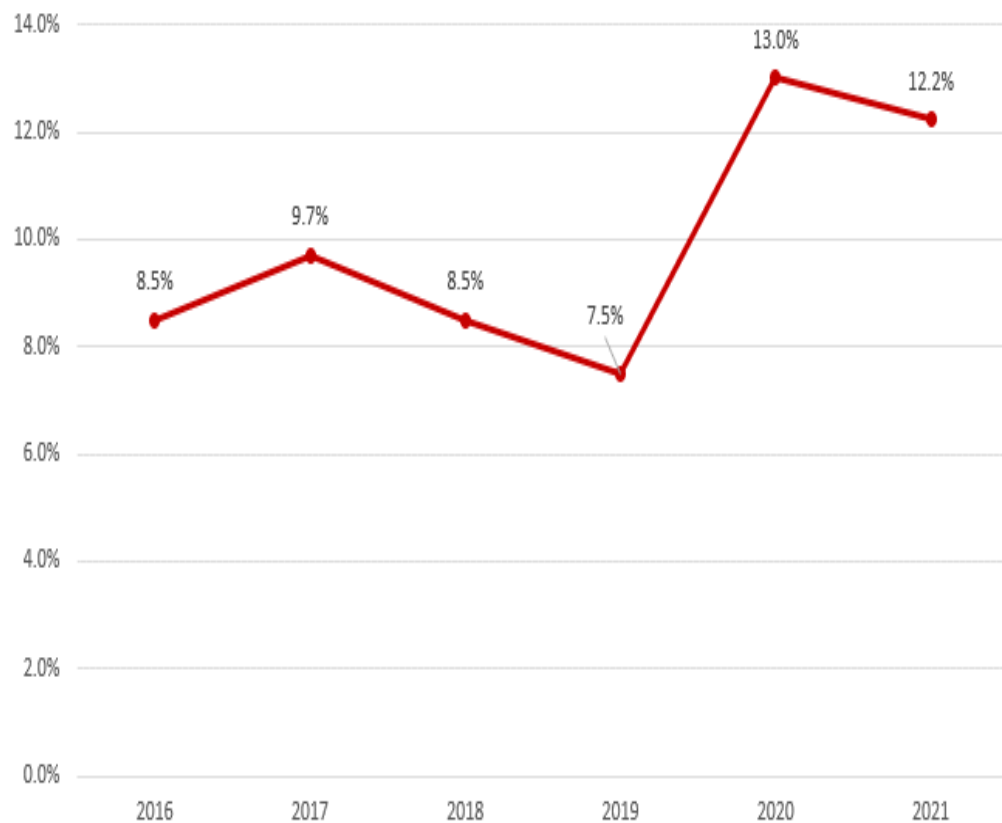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Express Market Size and Forecasting 2021-2026*, 2022.

●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의 성장률 둔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규모는 5,035억 3,4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규모는 6,482억 4,920만 유로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운송시장 성장률(2016~2021년)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Express Market Size and Forecasting 2021-2026*, 2022.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Express Market Size and Forecasting 2021-2026*, 2022.

이재호 전문연구원

051-797-4685, jhlee8604@kmi.re.kr

## CEVA Logistics, 필리핀 신규 물류센터 운영 개시

### ➤ CEVA Logistics가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에 신규 물류센터 운영을 본격 개시함

- 신규 물류센터는 마닐라 내 Taguig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닐라항과 약 20km, 공항으로부터 약 12km 떨어져 있어 주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남
- 전체 물류센터 면적은 약 14,000㎡에 달하며 주요 품목으로는 전자제품을 비롯해 냉동·냉장식품 및 생필품 등 다양한 분야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음
- 현재 약 50명 규모의 직원이 피킹, 포장, 라벨링, 분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 동 물류센터는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물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 입출고 내역 확인 등 재고관리 최적화 및 창고 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설 예정임
- 물류센터 내 피킹 로봇뿐만 아니라 재고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등 첨단 장비 및 기기를 적극 도입해 활용할 계획임
- 또한 창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적극 추진해 탄소 배출 절감 등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 CEVA Logistics 신규 물류센터



자료 : <https://payloadasia.com>, (검색일 : 2022.06.22.)

- CEVA Logistics 관계자에 따르면 동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회수물류 및 역물류를 비롯해 B2B와 B2C 등 옴니채널 전략을 적극 수립할 예정이며, 필리핀을 기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공급망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동 물류센터는 필리핀 시장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향후 글로벌 공급사슬 리스크 및 다변화 관점에서 아태 시장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어, 당분간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거점 확보 등 해외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DB Schenker, 종합물류기업으로 전환 가속화

- ▶ 지난 24일 WSJ에 따르면 DB Schenker가 미국 화물 운송업체인 USA Truck을 인수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음
  - DB Schenker는 연 매출 기준 세계 3위의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 독일 국영 철도회사 Deutsche Bahn AG의 자회사임
  - 인수금액은 약 2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 ▶ 2021년부터 DB Schenker는 영업 부문과 아웃소싱 트럭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트럭 운송 서비스를 넓혀 나갔음
  - 금색으로 칠해진 특별한 트럭이 북미 전역을 질주해 고객을 방문하는 DB Schenker의 능력을 선보였음
- ▶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을 자산 기반 화물운송 기업과 서비스 중심의 국제물류주선 업체(freight forwarder)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음
- ▶ 글로벌 물류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공급망 혼란에서도 고객들에게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DB Schenker가 북미지역에서 운영하는 황금색 트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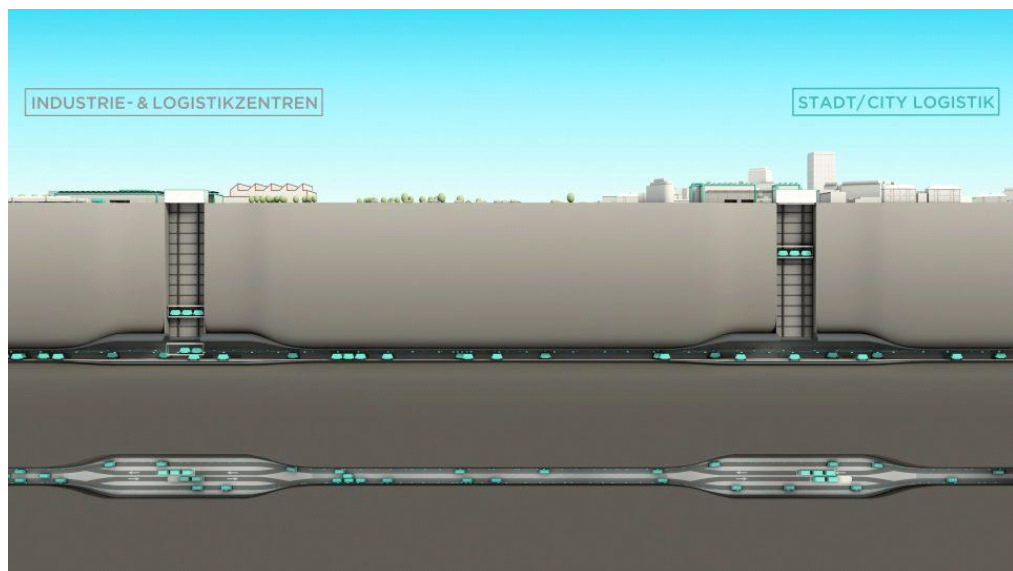
자료: American Shipper 「German 3PL DB Schenker buying USA Truck for \$435 million」 (2022.06.24.) 기사 참조

- DB Schenker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USA Truck 고객에게 항공 및 해상운송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에게 미국과 멕시코에서 직접 트럭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음
  - DB Schenker 관계자는 DB Schenker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획득한 운송, 통관 및 중계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국경 간 트럭 운송을 처리하는 데 경쟁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올해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미국 트럭 운송기업 인수합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초 Maersk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화물 서비스 제공 기업 파일럿(Pilot)을 인수했음

## 스위스 연방 평의회, 지하 화물 운송에 관한 법안 승인

- 스위스 연방 평의회(Swiss Federal Council)가 지하 화물 운송에 관한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본 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본 법으로 Cargo Sous Terrain(CST)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 CST는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생산 및 물류 허브 중 일부를 연결하는 지하 화물 전용 철도 회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 자금 지원 계획임
- CST는 먼저 Härkingen-Niederbipp와 Zurich 사이의 북부 스위스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약 70km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첫 번째 구간이 2031년에 개통되고 2045년까지 500km의 네트워크가 바젤, 루체른, 툰에 지선과 함께 콘스탄스 호수와 제네바 호수 사이에 운영될 계획임
  - 소프트웨어, 허브, 지하 및 지상 차량(도시 배송용)을 포함한 첫 번째 섹션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억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됨

### 지하 철도 화물 네트워크 3D 시뮬레이션 예시



자료 : [www.railfreight.com](http://www.railfreight.com), (검색일: 2022.06.29.)

- 스위스 연방 평의회가 시행에 필요한 법안을 승인한 후 이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말까지 CST는 Aargau, Solothurn 및 Zurich 주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Harkingen에서 Zurich 공항까지의 첫 번째 네트워크를 따라 적절한 허브 위치를 조사·분석할 예정임
  - Zurich 공항은 지하 철도 화물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화물의 빠르고 쉬운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물류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으로 공항은 본 프로젝트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임
  
- 또한 이 프로젝트는 이미 Zurich와 동부 스위스 사이의 지하 화물 운송 가능성을 분석했으며, CST와 St Gallen 및 Thurgau 주와 함께 동쪽 확장 방안을 모색 중임
  - 네트워크를 St Gallen까지 확장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망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건설 가능한 허브 위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수행할 예정임

## 유럽 주도로 시작된 녹색 해운회랑 계획

### 정부 간 회의를 통한 클라이드뱅크 선언과 미션 이노베이션

#### ▶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클라이드뱅크 선언(Clydebank Declaration)이 발표됨

- 주요 해운물류 선진국 등 22개국이 서명한 클라이드뱅크 선언은 참여국간 녹색해운회랑(Green Shipping Corridor)을 도입해 무탄소(zero emission) 선박 운항 및 청정에너지(연료)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6개 항로 개설을 목표로 함
- 유럽의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참여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및 싱가포르가 참여함
- 클라이드뱅크 선언은 항만, 선사 및 가치사슬 관련자 등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가행동계획에 녹색해운회랑 개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시함
- 한편 녹색해운회랑은 온실가스 감축과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결성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국제 협력체인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이니셔티브<sup>1)</sup> 계획을 반영함
- 미션 이노베이션은 장관급 협력체로 2015년 11월에 출범하여 현재 제2기(MI 2.0)가 진행 중임<sup>2)</sup>

#### ▶ 녹색해운회랑을 추진하는 미션 이노베이션(무탄소 해운 분과)<sup>3)</sup>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전 세계 원양선대의 5%(200척) 이상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션 이노베이션의 무탄소 해운(zero emission shipping)분과는 덴마크·노르웨이·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도하며,<sup>4)</sup>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과 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for Zero Carbon Shipping)가 주요 역할을 함
- 핵심참여국은 영국(교통부), 인도(과학기술부), 싱가포르(해운항만청)<sup>5)</sup> 등이며, 지원국은 프랑스(해양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등임
- 사무국 업무는 덴마크 해사청(Danish Maritime Authority)이 수행함
- 미션 이노베이션은 그린 수소·암모니아·메탄올 및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무탄소 선박·항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체 공급망(가치사슬) 차원에서 접근함
- 특히 민간참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실증 등을 바탕으로 상업적 실현 가능성이 모색됨

1) Zero-Emission Shipping Mission

2)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며, 오는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7차 각료회의(Mission Innovation Ministerial)가 예정됨

3) 미션 이노베이션의 주요 기술분과에는 무탄소 해운 이외에 청정 수소, 녹색 전력 등도 포함됨

4) 덴마크 정부는 산업경제재정부, 기후에너지부, 외교부 등이 참석하며, 미국은 에너지부, 노르웨이는 기후환경부에서 담당함

5) Maritime and Ports Authority(MPA)

➤ 미션 이노베이션은 2030년까지 유럽, 미주, 아시아 등의 10개 대형 항만에서 청정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녹색해운회랑을 추진할 계획임

- 목표인 무탄소 해운이 가능한 녹색해운회랑 구축은 연료 생산부터 선박에서의 배출까지(well to wake) 관련 인프라와 정책 지원을 통해 선도그룹(first movers)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됨
- 이를 위해 5개의 혁신 분야를 로드맵에 설정함: ① 안전·운영 리스크 관리(연료 취급·보관을 위한 안전·지침·훈련·방법), ② 정책·규정(규정·인센티브 제정 또는 공유), ③ 시장개발·비즈니스모델·금융(비즈니스모델, 타당성·재무 분석, 보조금·재원조달), ④ 기술개발·적용(연구개발 실증), ⑤ 시장분석(시장지식 창조·통합·보급)<sup>6)</sup>
- 미션 이노베이션의 녹색해운회랑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민간단체(기관)인 세계해사포럼과 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는 핵심 주도국인 덴마크에 위치함

녹색해운회랑 관련 회의 사진



자료 : <https://piernext.portdebarcelona.cat/en/mobility/green-shipping-corridors-clydebank-declaration/>, <http://mission-innovation.net/wp-content/uploads/2021/06/MI-6FamilyPhoto2.png>(검색일 : 2022.6.21.)

## 핵심 민간기관인 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와 세계해사포럼

➤ 독립연구소인 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sup>7)</sup>는 탄소제로 기술과 솔루션 개발을 위해 글로벌 해운물류 및 화주 기업들<sup>8)</sup>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는 에너지·해운 공급사슬과 생태계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며, 무탄소 해운 생태계를 가치사슬과 조력자(enabler)로 구분하여 접근함
- 가치사슬에는 조선기자재, 조선(선박설계), 선주(운선주), 항만, 에너지(발전소), 최종고객 등과 조력자 영역

6) Mission Innovation, Industry Roadmap for Zero-Emission Shipping, April 2022,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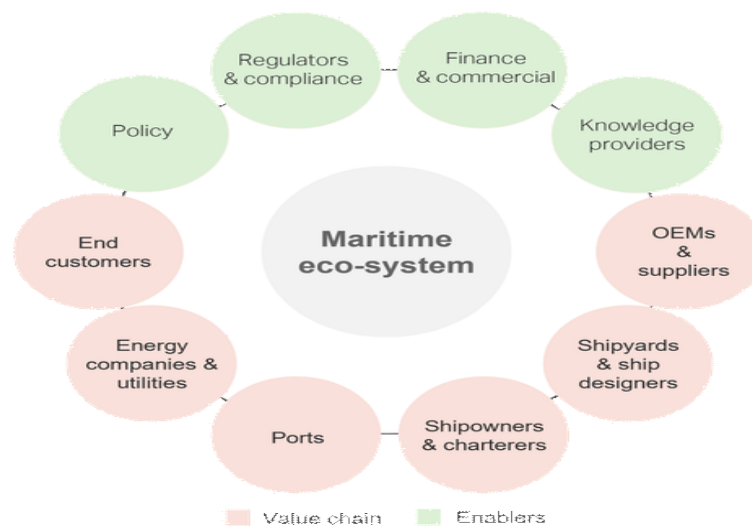
7) 2020년 AP 물류 재단의 기부로 설립됨

8) 하팍로이드, NYK, Seaspn, 디파월드, 카길, BP, 토탈, 미국선급, MAN 등

에는 정책, 규제당국(준수), 금융(상업), 지식제공자 등이 포함됨

- 또한 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가 최근에 개발한 Naviga TE 모델을 통해 탄소제로를 위한 선박 효율향상 기술, 선박연료, 금융, 규제 등의 측면에서 선주의 총비용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의사결정자의 이해를 도움<sup>9)</sup>

#### 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의 무탄소 해운 생태계 영역



자료 : www.zerocarbonsshipping.com, (검색일 : 2022.06.21.)

#### 미션 이노베이션의 녹색해운회랑 계획의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세계해사포럼은 2017년 설립되어 해운-해사 분야의 기업과 단체가 가입됨

- 전략 파트너로 로이드선급, 오나시스재단, 스테나, MISC, 스위스재보험 등이 있으며, 머스크, ONE, 완하이, 유로나브, MOL, 미쓰이, 조디악, 퀴네앤드나겔, BP, 쉘, 카길, 트라피구라, 리오턴토, PSA 등이 파트너로 참여함
- 또한 싱가포르의 해운탈탄소화 국제센터(Global Centre for Maritime Decarbonisation)<sup>10)</sup> 및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P4G, 해양행동프렌즈(Friends of Ocean Action) 등의 국제적인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함
- 세계해사포럼은 해사분야의 리더십, 인재양성, 선원 등과 관련된 활동과 함께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주력함
- 대표 프로젝트인 탄소배출제로연대(Getting to Zero 2030 Coalition)는 민간이 주도해 선박 온실가스를

9)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for Zero Carbon Shipping, Sailing toward carbon zero?, October 2021, p.3.

10) 싱가포르 MPA의 지원과 BHP, BW, DNV, ONE, 싱가포르 이스턴 퍼시픽 쉬핑 및 셉코프 마린 등이 참여하여 2021년 8월에 설립됨

감축하는 이니셔티브로 세계경제포럼 및 해양행동프렌즈와 함께 2018년 10월에 시작됨

- 이 연대는 전 세계의 약 15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대상선, 한국선급, 대우조선해양이 가입함
- 또한 우리 정부도 탄소배출제로연대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연대를 지원함
- 탄소배출제로연대는 2050년에 무탄소 선박 운항(탈탄소화)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선박 및 항만 인프라(연료 생산-벙커링) 등의 상용화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임

### ● 세계해사포럼은 글로벌 해상 무역의 탈탄소화를 위해 해운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함

- 탄소배출제로연대는 국제해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운, 물류, 조선, 항만, 금융, 에너지 등의 주요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임
- 세계해사포럼은 해운 생태계의 중요 요소의 하나인 선박금융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박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결성해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sup>11)</sup>을 2019년 6월에 마련함<sup>12)</sup>
- 선박금융기관은 해운기업 대출시 포세이돈 원칙을 활용해 기후연계성을 평가하고, 선박의 탄소저감 실적을 지표로 공시함<sup>13)</sup>
- 이후 세계해사포럼은 전략 파트너인 카길, 트라피구라, 쉘 등이 포함된 33개 주요 화주기업 등과 해상화물헌장(Sea Cargo Charter)을 2020년 10월에 도입함<sup>14)</sup>
- 이를 통해 글로벌 화주기업들이 해운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동 기준으로 정량적 친환경 평가(배출량 추적)와 공개로 향후 선박용선 결정을 추진함
- 이와 같이 세계해사포럼은 탄소배출제로연대, 포세이돈원칙, 해상화물헌장 등을 도입해 해운물류 생태계의 민간 참여자들이 녹색해운에 동참하도록 유도함

### ● 세계해사포럼은 지난해 클라이드뱅크 선언 발표일에 녹색해운회랑 보고서를 공개함<sup>15)</sup>

- 녹색해운회랑 구축을 위해 4개 부문의 역할이 강조됨: ① 수요와 공급측면의 가치사슬 협력(cross-value-chain collaboration), ② 실현가능한 무탄소 연료 전환(viable fuel pathway), ③ 녹색해운회랑 수요(customer demand), ④ 정책 인센티브·안전규정(policy/regulation)
- 시범사업으로 호주-일본 철광석 항로(그린 수소-암모니아) 및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항로(그린 메탄올-암모니아)

11) 4대 원칙: 기후연계성 평가(Assessment of climate alignment), 신뢰성(Accountability), 이행(Enforcement), 투명성(Transparency)

12) 세계해사포럼은 선박보험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선박금융 포세이돈 원칙과 유사한 해상보험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 for Marine Insurance)을 2021년 12월에 도입함

13) 이에 따라 해운분야의 ESG 경영이 촉발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DBJ, MUFG, Shinsei, SMBC, SMFL, SuMI Trust 등의 금융기관 및 싱가포르의 OCBC가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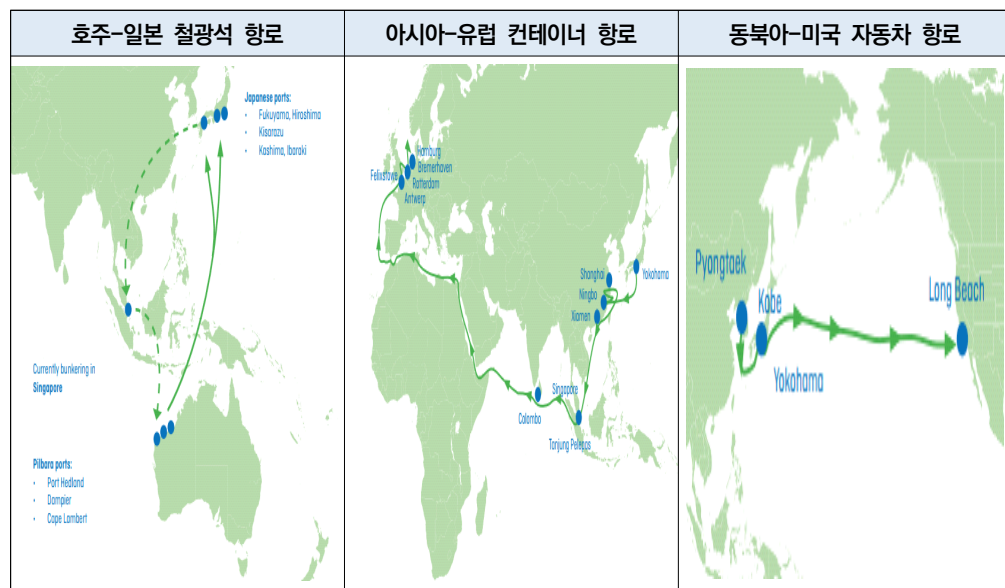
14) 아시아에서는 NYK 벌크(대서양)가 참여함

15) Getting to Zero 2030 Coalition, The Next Wave: Green Corridors, November 10 2021; 이 보고서는 호그자동차운반선사, 퀴네앤드나겔, 로이드선급, 머스크, NYK, 리오턴토, 쉘커, 앤티워프항만청, 로테르담항만청, 스타벌크, 아라 등의 공식적 지지를 받음

니아)가 제안됨

- 또한 동북아시아-미국 자동차 항로 등이 예비 사업으로 추천됨
-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전환, 지원 제도-인프라 구축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향후 추가항로 개설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장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항로는 덴마크 머스크 선사와 아마존, 유니레버, H&M 등 글로벌 화주가 참여하고<sup>16)</sup>, 호주-일본 철광석 항로는 스웨덴 Stena Bulk, 독일 Oldendorff 선사 및 철광석 메이저 BHP, Rio Tinto 등이 참여할 계획임<sup>17)</sup>

#### 세계해사포럼 탄소배출제로연대의 녹색해운회랑 시범 항로



자료 : www.globalmaritimeforum.org, (검색일 : 2022.6.23.)

16) [www.maersk.com/news/articles/2021/08/24/maersk-accelerates-fleet-decarbonisation](http://www.maersk.com/news/articles/2021/08/24/maersk-accelerates-fleet-decarbonisation)

17) [www.tradewindsnews.com/bulkers/bhp-rio-tinto-oldendorff-and-star-bulk-to-assess-iron-ore-green-corridor/2-1-1196812](http://www.tradewindsnews.com/bulkers/bhp-rio-tinto-oldendorff-and-star-bulk-to-assess-iron-ore-green-corridor/2-1-1196812)

세계해사포럼 탄소배출제로연대의 그린 수소 벙커링항



자료 : www.globalmaritimeforum.org, (검색일 : 2022.6.23.)

유럽 주도의 녹색해운회랑 참여국(기관)

| 구분                | 내용                                                                                                                                                                             | 비고                                                     |
|-------------------|--------------------------------------------------------------------------------------------------------------------------------------------------------------------------------|--------------------------------------------------------|
| 클라이드뱅크 선언         | 유럽(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br>아시아(일본, 싱가포르)                                                                                                             |                                                        |
| 미션 이노베이션 (무탄소 해운) | 주도국(덴마크·노르웨이·미국)<br>주도기관(세계해사포럼, 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                                                                                                                                | 핵심참여국(영국, 인도, 싱가포르 등)<br>지원국(프랑스, 한국 등)                |
| 세계해사포럼 (탄소배출제로연대) | 전략 파트너(로이드선급, 오나시스재단, 스테나, MISC, 스위스재보험 등)<br>파트너(머스크, ONE, 완하이, 유로나브, MOL, 미쓰이, 조디악, 퀴네앤드나겔, BP, 쉘, 카길, 트라피구라, 리오턴토, PSA 등)<br>파트너십(싱가포르 해운탈탄소화 국제센터, 세계경제포럼, P4G, 해양행동프렌즈 등) | 회원: 현대상선, 한국선급, 대우조선해양<br>지원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자료 : 저자 작성

## 유럽 주도의 녹색해운회랑 계획 주제

| 구분    | 주체                            | 목표                                     |
|-------|-------------------------------|----------------------------------------|
| 정상 회의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br>(클라이드뱅크 선언) | 2020년대 중반까지 무탄소 항로 6개                  |
| 장관 회의 | 미션 이노베이션<br>(무탄소 해운)          |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 200척 및 10개 대형<br>항만 인프라 |
| 민간 연대 | 세계해사포럼<br>(탄소배출제로연대)          | 호주-일본 철광석 및<br>아시아-유럽 컨테이너 항로 시범사업     |

자료 : 저자 작성

## 미국 주도의 선도그룹연합

● 유럽 주도의 세계해사포럼(탄소배출제로연대)에 이어 미국은 지난해 11월 세계경제 포럼과 공동 출범한 선도그룹연합(First Movers Coalition)<sup>18)</sup>을 통해 녹색해운회랑을 추진함<sup>19)</sup>

- 선도그룹연합은 항공·해운·철강·알루미늄 등 6개 주요 분야 탈탄소화를 위해 글로벌 연합이 집단구매력을 활용해 스타트업 등의 민간 녹색기술 솔루션(상품·서비스 포함)을 사들여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줌
- 혁신기술의 구매 대기 수요자 그룹을 통해 기술의 상업화(중진국으로 기술 확산)를 가속하기 위한 연합체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특사가 이끌고 있음
- 선도그룹연합에는 아마존, 애플, 보잉, 에어버스, 델타항공, 애질러티, DHL, 페덱스, 트라피구라, BHP, 머스크, MOL, 아라 등 5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sup>20)</sup>미국·영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이탈리아·일본<sup>21)</sup>·싱가포르·인도 등 9개 정부도 참여함<sup>22)</sup>
- 미국과 함께 선도그룹연합을 결성한 세계경제포럼은 세계해사포럼과의 탄소배출제로연대 추진과 별도로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의 아젠다와 관련해 미션파서블파트너십(Mission Possible Partnership)을 출범 한 바 있음<sup>23)</sup>
- 선도그룹연합은 1단계로 배출량이 많은 4개 분야(항공, 해운, 도로 운송, 철강)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함

18) coalition은 연대 또는 연합으로 번역되는데 First Movers Coalition은 정부에서 선도그룹연합으로 표기함, 외교부 보도자료 2022.5.24.

19) 미 국무부와 상무부가 주도함

20) 교통 및 중화학 산업 탈탄소화 추진을 위해 해운, 항공, 도로, 화학,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관련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함

21) 일본의 MOL은 이산화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분야에 참여함

22)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도 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을 받음

23) 미국의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지원하여 산업(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철강) 및 운송(항공, 해운, 도로) 분야 탈탄소화 목적으로 2021년 1월 설립됨

### ● 미국 주도의 선도그룹연합도 세계해사포럼과 협력해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이 전 세계 원양선대의 5% 이상이 되도록 동일한 목표를 설정함

- 이에 더해 화주의 경우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으로 화물의 10% 이상을 운송하고 2040년까지 100% 전환해야 함
- 미국 싱크탱크인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sup>24)</sup>가 결성한 화주 및 해운공급망 파트너 연합인 무탄소 선박화주(Cargo Owners for Zero Emission Vessels: coZEV)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무탄소 해운을 목표로 아마존, 미쉐린, 파타고니아, 이케아, 유니레버 등이 참여함<sup>25)</sup>
- 항만의 경우 2030년까지 LA항과 상해항을 오가는 태평양 컨테이너항로에 녹색해운회랑이 구축될 계획임
- 이 계획은 전 세계 100여개의 대도시가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C40(도시-기후 리더십 그룹)<sup>26)</sup>의 녹색항만포럼(Green Ports Forum)<sup>27)</sup>을 통해 2022년 1월 발표됨
- 미국 주도 녹색해운회랑의 가장 큰 특징인 항만(도시)연대인 C40는 항만, 선사, 화주 등과의 협력을 통해 녹색해운회랑을 구축할 계획임
- 태평양 컨테이너항로 녹색해운회랑에는 머스크, CMA CGM, COSCO, 상해국제항만그룹(SIPG), 해사기술 협력센터(아시아)<sup>28)</sup> 등이 참여함
- 미국 주도의 선도그룹연합, coZEV(무탄소화주), C40 녹색항만포럼<sup>29)</sup> 등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정책 연구기관인 아스펜이 수행함

#### 미국 주도의 녹색해운회랑 계획 주제

| 구분     | 주체                 | 목표                                         |
|--------|--------------------|--------------------------------------------|
| 정상급 회의 | 세계경제포럼<br>(선도그룹연합) |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이<br>전세계 원양선대의 5%            |
| 도시/항만  | C40 녹색항만포럼         | 2030년까지 LA-상해 컨테이너항로                       |
| 화주 연합  | 무탄소선박화주(coZEV)     | 2030년까지 화물의 10% 무탄소 선박<br>이용(2040년까지 100%) |

자료 : 저자 작성

24) 1949년에 설립된 워싱턴 DC 소재의 중도적 성향의 싱크탱크임

25) 이들은 공동화물수송 등을 통해 무탄소 해운에 대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탄소배출량 추적 등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함

26) Cities-Climate Leadership Group으로 영국, 미국 등의 주도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05년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이 2006년 7월에 가입함

27) 전 세계 항만 도시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항만, 해운, 공급망 부문의 개선을 위해 LA의 주도로 설립됨 (2021년 4월)

28) Maritime Technology Cooperation Centre-Asia: 국제해사기구(IMO)와 EU가 공동으로 설립한 선박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제공, 공유, 교육 등을 위한 플랫폼(2017년 5월 상해해사대학교에 설립됨)

29) 녹색항만포럼에는 오슬로, 로테르담, 스톡홀름, 코펜하겐, 두바이, 밴쿠버, 시애틀, 뉴욕, 상해, 광저우, 싱가포르, 도쿄, 요코하마 등이 참여함

미국 주도의 녹색해운회랑 참여국(기관)

| 구분                 | 내용                                                                                                                                 | 비고                                                                                  |
|--------------------|------------------------------------------------------------------------------------------------------------------------------------|-------------------------------------------------------------------------------------|
| 선도그룹연합             | 유럽(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br>아시아(일본, 싱가포르, 인도)<br>기업(아마존, 애플, 보잉, 에어버스, 델타항공,<br>애질러티, DHL, 페덱스, 트라피구라, BHP, 머스크,<br>MOL, 야라 등) | 세계경제포럼                                                                              |
| C40<br>녹색항만포럼      | 녹색해운회랑(머스크, CMA CGM, COSCO,<br>SIPG, 상해 해사기술협력센터)                                                                                  | 회원(오슬로, 로테르담,<br>스톡홀름, 코펜하겐, 두바이,<br>밴쿠버, 시애틀, 뉴욕, 상해,<br>광저우, 싱가포르, 도쿄,<br>요코하마 등) |
| 무탄소선박화주(c<br>oZEV) | 아마존, 미쉐린, 파타고니아, 이케아, 유니레버 등                                                                                                       |                                                                                     |

자료 : 저자 작성

유럽과 미국 주도의 녹색해운회랑 특징

| 구분        | 유럽                                                                                          | 미국                 |
|-----------|---------------------------------------------------------------------------------------------|--------------------|
| 상위 플랫폼    | 국제기구 공식회의<br>(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미션<br>이노베이션)                                                  | 세계경제포럼<br>(선도그룹연합) |
| 항만(도시) 연대 | 세계해사포럼 파트너(PSA)<br>탄소배출제로연대 회원<br>(암스테르담, 앤트워프, 브레멘, 런던,<br>로테르담, 몬트리올, 시애틀, 밴쿠버 프레이저<br>등) | C40 녹색항만포럼         |
| 민간 연대     | 탄소배출제로연대(해운·조선·물류), 포세이돈<br>원칙(선박금융), 해상화물현장(대량화주)                                          | 무탄소선박화주(coZEV)     |
| 추진 기관     | 세계해사포럼, 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                                                                       | 아스펜 연구소            |
| 항로        | 호주-일본 철광석 및<br>아시아-유럽 컨테이너 항로                                                               | LA-상해 컨테이너항로       |

자료 : 저자 작성

## 우리나라도 녹색해운회랑 준비해야

- >

아시아의 주요 해운국인 일본·중국·싱가포르 등은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녹색해운회랑 계획에 다양하게 참여함
- 일본은 정부·도시(항만)·민간·연구 등의 영역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며, 호주-일본(철광석) 및 아시아-유럽(컨테이너) 항로를 추진함
  - 중국의 경우 LA-상해(컨테이너) 녹색해운회랑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싱가포르도 세계해사포럼, 선도그룹연합 등에 파트너로 참여하며 기술연구 및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함
  - 우리나라는 세계해사포럼 탄소배출제로연대에 회원 가입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은 미미한 실정임

### 아시아 국가의 녹색해운회랑 참여 현황

| 구분     | 유럽                                                                                                                                                                          | 미국                                                  |
|--------|-----------------------------------------------------------------------------------------------------------------------------------------------------------------------------|-----------------------------------------------------|
| 정상급 회의 | 일본, 싱가포르<br>(클라이드뱅크 선언)                                                                                                                                                     | 일본, 싱가포르, 인도<br>(선도그룹연합)                            |
| 장관급 회의 | 싱가포르, 인도<br>(미션 이노베이션 핵심참여국)                                                                                                                                                | 상해, 광조우, 싱가포르, 도쿄,<br>요코하마(C40 녹색항만포럼)              |
| 민간 연대  | MISC(세계해사포럼 전략파트너)<br>ONE, 완하이, MOL, 미쓰이, PSA<br>(세계해사포럼 파트너)<br>NYK 벌크-대서양(해상화물현장)<br>DBJ, MUFG, Shinsei, SMBC,<br>SMFL, SuMI Trust(포세이돈 원칙:<br>일본)<br>OCBC(포세이돈 원칙: 싱가포르) | MOL(선도그룹연합 이산화탄소 제거)<br>COSCO, SIPG<br>(C40 녹색항만포럼) |
| 연구     | NYK<br>(머스크 제로카본 해운센터)<br>ONE<br>(싱가포르 해운탈탄소화 국제센터)                                                                                                                         | 상해 아시아해사기술협력센터                                      |

자료 : 저자 작성

- > 유럽의 주도로 시작된 녹색해운회랑 계획에 따라 새로운 규범·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해운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선제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녹색해운회랑은 선사, 화주, 물류, 조선, 금융 등 해운물류 분야의 모든 가치사슬 참여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계획임
  - 우리 정부도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과 선도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글로벌 해운물류산업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탄소중립 항만 정책 등과 연계한 녹색해운회랑 생태계 구축으로 친환경 가치사슬 및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해야 함
  - 또한 공동투자 연구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촉진하고 청정 선박연료의 생산, 운송, 인수, 저장, 공급 등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도입해 청색경제를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모집기간

2022년 6월 23일(목) 09:00 ~ 8월 4일(목) 18:00

## ■ 사업대상

##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보조

##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 보조

## ■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털(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 ■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실시  
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

##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 2022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 신청기간

2022. 6. 13.(월) 09:00 ~  
2022. 9. 2.(금) 18:00

###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2022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에 따름
-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22년 12월 중

###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 요망

###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E-mail 접수(아래주소 참조)

#### 신청 수수료 납부

- 신규 인증 : 300만원, 정기점검 : 150만원
-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안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김동환 전문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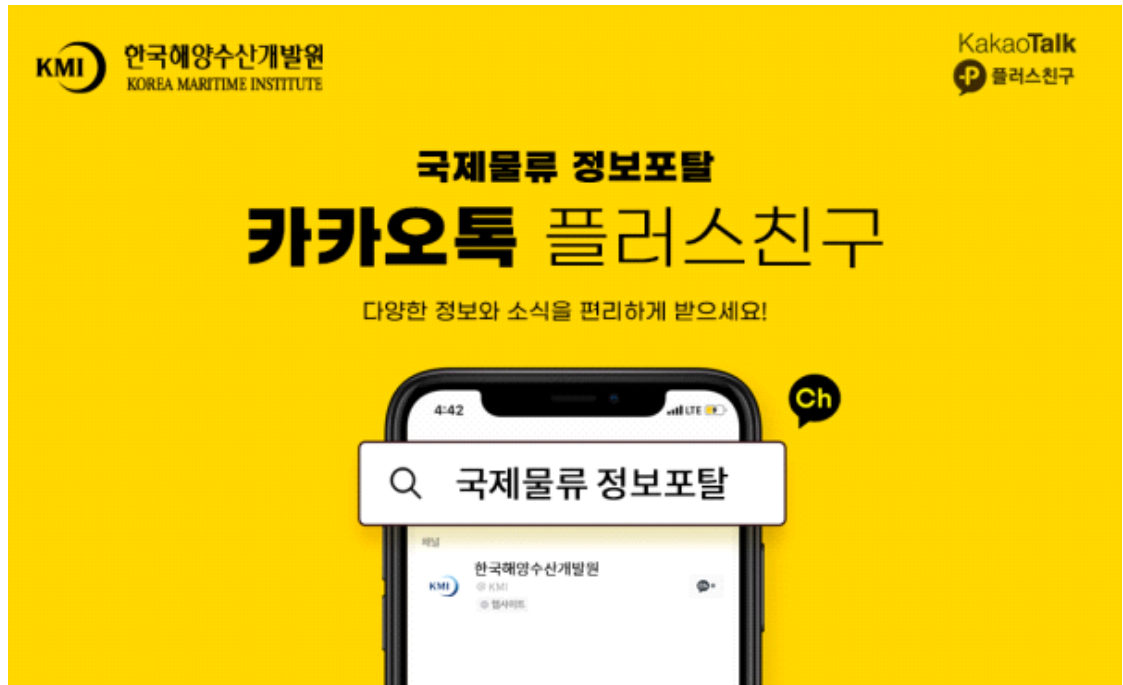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 공적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 우수물류기업 인증 현황

|                |                  |                               |                  |
|----------------|------------------|-------------------------------|------------------|
| 2021 우수국제물류(주) | 2020 (주)디엔비로지스틱스 | 2019 비아이디씨(주)                 | 2018 (주)비엔피로지스틱스 |
| 2016 (주)대평     | 2015 동원로엑스(주)    | 2014 (주)C&S국제물류센터, 캄트로지스부산(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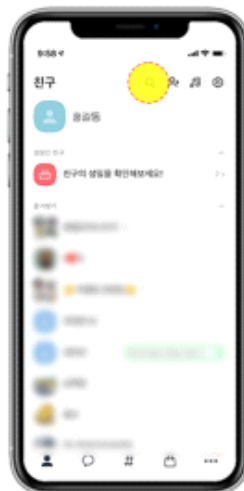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